

일본의 전통예술과 토끼



1. 초주기가 재방再訪

일본을 대표하는 회화작품에서 토끼 그림이라면 누구나 떠올리는 것이 국보 <초주기가鳥戲画>일 것이다. 교토 도가노오梅尾 고산지高山寺의 도바鳥羽 승정 카쿠유(覺猷, 1053~1140) 필筆로 전해진다. 잔존하는 4권은 각각 필치가 달라 다른 필자에 의한 것이라고도 한다. 토끼가 활약하는 갑 권을 조금 천천히 살펴보자. 정식으로는 『초주진부츠키가鳥獸人物戯画』로 칭하고 조수鳥獸가 인간을 모방한 의인화가 특이한데 우선 계류에서 목욕하는 것은 토끼와 원숭이. 원숭이는 원래 인간과 닮았기에 한층 토끼들의 인간이 무색할 정도의 몸짓이 두드러진다. 히사크柄杓로 물을 떠 원숭이의 등목을 하는 토끼, 당나귀에 비긴 사슴 등에 올라타고 강을 건너는 토끼와 그 마부를 연기하는 토끼. 이어 냇물에는 원숭이와 마주하고 물길을 가르며 유명하는 토끼나 바위에서 머리부터 냇물에 뛰어들어 공중에 하반신만 떠있는 다이빙 토끼도 그려져 있다. 다음으로 무대가 옮겨져 연잎을 표적으로 삼아 궁시의 표적사격 경기에 열중하는 토끼와

개구리인데 이것도 웬지 토끼가 주역으로 여우들은 보좌역인 상황. 개구리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활과 화살의 조정에 여념이 없다. 연희의 준비인지 안주를 담은 궤를 멘 토끼 두 마리^㉞ 뒤엔 토끼와 개구리가 술통을 나르고 있다. 늦어서 서두르는지 활과 화살을 어깨에 메고 질주하는 토끼와 그것을 향해 손짓하며 입을 벌리고 뿔가를 외치는 토끼도 보인다.

후단에는 개구리와 토끼의 스모^{相撲}도 그려져 있다. 토끼의 귀를 물고 발걸이 공세를 걸어 토끼를 쓰러뜨리고는 우쭐하여 기염을 올리는 개구리의 도상^{圖像}이 유명하다. 교과서에서 본 이래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무의식중에 기억하는 광경이다. 그리고 법회의 장면에는 검은 관을 쓴 토끼가 한편에서는 염주를 만지작거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언뜻 보기에 호피를 손에 쥐고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다. 만화가인 데즈카오사무^{手塚治蟲}는 각별히 〈초주기가〉를 사랑하여 NHK프로그램에 초대받았을 때 즉흥으로 도상을 재현해 보였는데 그때 데즈카의 화필에서 출현한 것도 다름이 아닌 스모에서 저서 넘어지는 이 토끼의 모습이었다.

2. 음양오행설에서는 풀리지 않는 『초주기가』

하지만 애초에 왜 토끼와 개구리가 씨름을 하고 있을까. 하나의 가설로는 항아^甕 전설이 상기된다. 태고 세계에 열 개의 태양이 있어 대지를 모조리 태워버리려 하자 활의 명인 예가 아홉 개의 태양을 쏘 떨어뜨리

고 서왕모西王母로부터 불로불사의 약을 포상으로 하사받는다. 그런데 그것을 아내인 항아가 훔쳐 달로 도망쳐버린다. 서왕모의 분노를 산 항아는 그 벌로 섬여, 즉 두꺼비로 변하게 되었다. 그래서 달에는 두꺼비가 살고 있다는 널리 알려진 전설이다.

물론 달에는 토기도 살고 있다. 일본에 존재하는 유품으로 나라奈良 쥬구지中宮寺의 국보 <텐주고쿠슈초天寿国繡帳> — 아스카飛鳥 시대 — 의 잔결殘缺 좌측위에 지수된 달토끼가 오랜 작례作例로서 알려져 있다. 원형 달 속에서 토끼가 약 항아리 혹은 절구를 찧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오른손에 있는 것은 아마도 달에 있다는 계수나무일 것이다. 쥬구지에서 지금도 선물로 팔고 있는 진키도레이神龜土玲는 여기에서 무늬를 취하고 있다. 거의 동시대 작례인 호류지法隆寺의 《다마무시노즈시玉虫 膠厨子》에도 수미산도須彌山圖의 <사신사호捨身飼虎> 도안 위쪽에 달토끼가 밀타화로 그려져 있다. 이쪽은 불타의 전세담인 『자타카Jataka』 속에 있는 「토왕본생담兔王本生譚」에 유래한다. 어느 날 여우와 원숭이와 토끼가 사는 숲에 제석천이 노부의 모습이 되어 나타난다. 음식食을 구하는 노부에게 여우는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지참하고, 원숭이는 나무에 올라 과실을 따지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토끼는 자신을 먹이로 하라며 불 속에 투신 자살을 한다. 토끼의 희생의 덕에 감동한 제석천이 토끼를 구하고 달로 소생시킨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는 토끼는 제석천의 권속眷屬으로 대우받아 왔다. 일본에서는 『금석물어집今昔物語集』 제5권 13에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와 불타가 전세에 호랑이에게 자신을 먹이로서 제공한 이야기가 호류지의 <사신사호>에서는 하나로 결부된 것 같다. 이러한 얼마 되지 않는 현존하는 작례를 보더라도 달토끼에게는 불전과 중국의 설화

가 절충한 흔적이 있다.

여기서 이야기를 되돌리면 어찌하여 토끼와 개구리가 달에서 영역 분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억지라고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것을 목화토금수의 음양오행으로 해석하는 설이 있다. 달은 ‘물’의 정령精으로 여겨지기에 ‘흙’의 기를 가지는 두꺼비에 의해 침식된다. 이것이 달이 이지러지는 원인, 즉 ‘흙은 물을 이기고土剋水’이다. 이에 대하여 금여옥토金屬玉兔, 즉 토끼는 ‘나무’의 기를 가지고 있어 성장을 담당한다. 그래서 달이 다시 차오는 것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명월의 정령이 된 토끼는 달에 있는 토끼를 바라보고 새끼를 배고 그 연령은 지토세千歲라 하여 서조瑞兆 동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은 이 설명으로는 <초주기가>의 스모 장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화면에서는 개구리가 토끼에게 승리를 거두고 기염을 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오른쪽에는 개구리가 뒤로 벌렁 나자빠져 있으니 아무래도 개구리 살인의 하수인인 것 같은 원숭이를 토끼와 개구리가 쫓아가는 장면이 바로 그 오른쪽에 그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사태는 삼파전의 양상을 나타낸다.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을 설화나 불교의 설법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초주기가>의 재미인 것이다.

3. 반복과 변주

그리고 이 썸에서 <초주기가>는 더더욱 정채精彩를 띤다. 무슨 일일까 하고 뒤돌아보는 토끼와 여우의 시선을 쫓아 에마키繪卷를 왼쪽으로 펴

가면 바로 앞에 원숭이를 쫓아가는 토끼나 개구리의 모습이 보인다. 왜 추적극인가 하고 좀 더 에마키를 왼쪽으로 떠나가면 간신히 추적의 원인이 밝혀진다. 다시 말해 동일한 등장인물일 수 없는 짐승들이 시간이 옮겨진 상태로 에마키 안에 교묘하게 병렬하고 있다.

이 기법은 ‘이시동도법異時同屬法’ 등으로 불리는데 에마키의 전개처럼 이야기가 전개되는 취향은 데즈카手塚가 본격적으로 착수한 애니메이션 동영상의 시조로서 명예를 저버리지 않는다. 애니메이션이란 반복과 변주 속에 움직임을 표현하는 수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붓으로 그린 회화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이나 중국과 비교하여 토끼 그림에 일본다운 특징을 찾는다면 어떨까. 혹은 옷칠을 거둬한 마키에蒔繪에 토끼의 의장이 많이 등장하고 있을까? 에도江戶 시대의 작품 〈波兔蒔繪櫛篋〉에는 초자연적일 만큼 긴 귀가 기다랗게 깔리고 물결을 넘어서 도약하는 토끼가 그려진다. 광篋 주위를 몇 마리나 비상하고 있지만 과연 이 또한 반복과 변주에 의해 동일한 토끼의 각양각색의 자태를 연속해서 그린 취향인 것일까. 그렇다면 그대로 이드워드 머이브릿지 Eadward J. Muybridge나 에티엔느 쥘 마레Etienne Jules Marey가 19세기 말에 시도한 실험적 연속 사진의 선취先取라는 것인가. 화제는 『고사기古事記』의 이나바노시로사기因幡樛白兔에 유래한다고 한다. 그러나 요코쿠謡曲의 〈치쿠부시마竹生島〉에 유래하는 나미우스기波兔 무늬의 변주로도 보인다. 이쪽은 “달이 호수에 뜨면, 토끼도 물결 사이를 달릴까, 황홀한 포구의 경치여”의 장구章句로 알려져 유행하였다. 기타노텐만구北野天満宮의 산코몬三光門의 당광풍唐破風에도 〈波兔三日月彫刻(1607)〉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토요토미히데요리豊臣

秀頼의 기부로 그 유래에서는 비와코琵琶湖의 치쿠부시마와의 관련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어느 도안이 이나바노시로 사기이고 어느 것이 『치쿠부시마竹生島』 기원인지 절연截然하게 구별하여 단정할 정도의 준비도 견식도 없다. 문학적인 전거典拠는 반드시 작품의 이해에 보탬이 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2대·요네다마고로쿠米田孫六에게는 〈蒔繪猿兔綱引図印籠〉가 알려져 있다. 카가마키에加賀蒔繪의 수작이지만 한 면에는 원숭이 다른 면에는 토끼가 배치되어 목 뒤에 줄을 걸어서 몸을 짓히고 서로 잡아당기는 경기를 하고 있다. 카가번加賀藩에 유래하는 명품을 많이 소장하는 가나자와金沢 현립미술관에는 토끼를 모티프로 한 공예품이 다수 수장되고 있다. 그것들을 별견瞥見하고 생각해본다. 〈초주기가〉 이래 아무래도 일본의 공장工匠들은 원숭이와 토끼의 배합에 매료되어 주박呪縛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면서도 다양한 변주를 시도하는 것으로 미술·공예의 역사를 엮어 온 것 같다고 생각해본다.

〈초주기가〉는 에마키라는 극히 가로로 긴 화면에 있어서 반복과 변주의 묘기를 펼쳐보였다. 그 같은 가로로 긴 화면에 토끼를 배치한 명품으로서는 사가嵯峨의 다이카쿠지大覚寺·세이신덴正宸殿의 장벽을 꾸미는 이타에板繪가 또한 국보로 지정되었다. 예전에는 고린光琳 작으로 전해진 것과 중국이나 한국의 전통과는 일선을 긋는 장식성이 현저하게 인정된다. 또 동물분류의 전문가라면 도호쿠멧 토끼, 규슈멧 토끼 등과 같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생식지를 달리하는 다양한 종류의 야생 토끼가 구분되어 그려져 있는 것도 이취가 깊다. 무리를 지어 휴식하는 토끼들 속에 가장 앞에서 뒷발을 쭉 뻗고 귀를 뉘어 엮드려 누운 검은 토끼가 유달리 눈에 띈다.

타와라야소타츠(倭屋宗達)나 와타나베시코(渡邊始興, 1683~1755), 마루야 마오쿄(丸山応挙, 1733~1795), 19세기라면 간쿠(岸駒)나 우타가와히로시게(歌川広重)에게도 토끼의 명작이 알려지지만, 교토에서 시조마루야마(四條丸山)파의 계통을 이어받은 근대의 화가로서 문화훈장을 수상한 다케우치세이호(竹内栖鳳, 1864~1942)에게도 <기르는 원숭이와 토끼> (국립근대미술관)라는 한 벌이 알려져 있다. 원숭이와 토끼를 한 쌍으로 하는 취향은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초주기가』를 답습하고 있다. 게다가 떼 지어서 쉬는 토끼들의 자세를 생생하게 잡아내는 붓에는 다이카쿠지 이타에(板絵)와 같이 뒷발을 쪽 뺀어 쉬는 토끼가 그려져 있다. 가장 나태한 모습을 하는 그가 화면 안에서는 제일 잘난 듯 보인다. 세이호(栖鳳)는 원숭이를 3년 정도 길렀다고 한다. 이 그림에는 다이카쿠지 이타에(板絵)의 화공이 내보인 날카로운 관찰안을 현대에서 이어받으려는 작자의 묘사력, 적개심과 자신감까지도 들여다보이는 것 같다.

4. 가문(家紋)의 토끼

그건 그렇고, 중국에서는 토끼는 달을 보고 새끼를 밴다고 한다. 이러한 달토끼의 우화 하나를 보더라도 토끼가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환영받은 것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지손번영으로 보면 가문(家紋)의 토끼에 담겨진 의미를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서 유난히 특이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 가문의 토끼일 것이다. 정면을 향한 우사기(兎), 그것을 옆으로 둘러싼 마루우사기(丸兎), 그 꼬리가 가늘면 호소와니(細輪稚兎). 먼

저 거론한 <치쿠부시마(竹生島)>에 유래하는 나미니우사기(波種兎). 그것을 귀신 모양의 귀와 같은 아치형의 사다리꼴에 배치하고, 양측에서 축 늘어지는 화수(花樹)안에 정면을 향한 토끼를 두는 하나우사기(花兎), 그 위에 뒷발로 선 한 쌍의 토끼를 그린 무카이우사기(对兎) 등이 얽전한 부류이리라. 그런데 이에 더해서 문양화가 현저한 가몬도 알려져 있다. 미츠우시로무키(三葉後向鬮兎) 등은 쇼렌인다이콘(靑蓮院大根)가 뿌리를 이쪽으로 향하게 하고 세 개가 교대로 나열해 있는 것 같은 안배다. 미츠우사기(三葉兎)는 정면에서 본 토끼를 삼각형에 조합시킨 것으로, 세 마리 토끼의 귀가 역삼각형을 이룬다. 게다가 극단적인 것이 시리아이노우사기(尻合糶兎). 순무의 뿌리를 중심으로 세 개 합친 것 같은 동심원의 도안은 지극히 추상적이어서 이름을 듣지 않으면 도저히 토끼를 그린 도안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여기서는 세 마리의 토끼의 귀가 꽃잎을 감싸는 꽃받침과 같이 도안의 주위를 잇고 있어 즐기는 마음의 디자인 감각이 넘쳐흐르고 있다. 과연 이런 문양 의장이 유교사회인 한국과 중국에서도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나가 시게미 | 이향숙 옮김

十二支神
도끼

초 판 1쇄 인쇄 | 2010년 10월 16일

초 판 1쇄 발행 | 2010년 10월 21일

책임편집 이어령
펴낸이 박광성
펴낸곳 생각의나무

주 간 정해중
관 리 권은수 이세희
편 집 김지환 강지혜 신동민 허 승 권은정
성혜연 구태은 박지혜 정지은 강해님
디 자 인 안희정 이하나 채 승
기획매칭 이한주 한충희 도경의

주 소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6-11
전 화 3141-1616
팩 스 3141-1502(편집), 3141-9079(영업)
등 록 1997년 11월 19일 제 16-1552호
홈페이지 www.itreebook.com

용지·상자P&P 인쇄·새한문화사 제본·대흥제책

ISBN 978-89-6460-250-8 03380

- * 이 책의 저작권은 유한킴벌리와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에 있습니다.
- * 이 책의 글과 그림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十二支神' 시리즈는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이해를 돕고자 유한킴벌리의 사회공헌 연구사업으로 기획되었습니다.